



▲ 지난 5월 13일(토)에 하림미션홀에서 교육방송국 개국 4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진행했다. 교육방송국에서 활동했던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교육방송국)

## 제1회 전주대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제1회 전주대 총장배 전국 태권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대한태권도협회(KTA)에서 전국대회로 승인받은 첫 대회이기에 그 의미 또한 크다.

6일 오전 11시에 열린 개회식에는 박진배 총장을 비롯한 양진방 대한태권도대회협회장, 양경숙 국회의원, 고봉수 전라북도 태권도협회장 등 태권도 관계자 외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우편과 황금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었다.

박진배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1월 전국대회로 승인받아 ‘제1회 전주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대회’로 개최하게 되어 더없는 영광이며,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소중한 기회의 장을 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태권도협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선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라며 인사를 전했다.

고봉수 전라북도 태권도협회장은 격려사에서 “꿈이 있는 대학! 동행하는 대학! 역량 있는 대학! 수퍼스타를 키우는 전주대학교에서 개최하는 제1회 전주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태권도 품새 선수를 발굴, 육성하는 뜻깊은 대회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개회식 후 우리 대학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드는 한 소년이 외톨이가 되어가는 현실에서 위로가 되어 주었던 온라인 게임 속 캐릭터들과의 경험을 소재로 한 이야기를 담아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 참석한 선수, 내외빈 및 모든 이들에게

큰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다.

제1회 전주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대회는 품새, 격파로 나뉘어 개인전, 복식전, 단체전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전국에서 2,329명의 태권도 선수가 참석하여 각자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 개교 59주년 기념예배 및 글로벌대학 혁신 선포식

개교 59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학이 지난 4일(목) 예술관 JJ아트홀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기념예배 및 글로벌대학 선포식, 명예박사 수여식을 개최했다.

기념예배 및 글로벌대학 혁신 선포식에는 차종순 이사장과 박진배 총장, 각 처장 등 주요 내빈과 더불어 많은 본교 구성원이 참석했다. 1부 기념예배를 시작으로 2부 글로벌대학 혁신 선포식, 3부 교직원 수상 기념식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인도자를 맡은 김문택 선교봉사처장의 예배의 부름을 시작으로 찬송과 기도, 특송, 성경 봉독이 이어졌다. 축도에서 차종순 이사장은 “우리 대학은 기독교 대학으로서 다른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우직함을 앞세우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라며 “여기에 평생 몸담을 교수님들과 직원들, 모든 학생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간절히 축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2부 글로벌대학 혁신 선포식이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홍성덕 기획처장은 글로벌대학 추진 경과보고에서 “글로벌대학은 광대한 혁신으로 지역 산업과 사회를 연계하고 특성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혁신을 선도하는 사업이다. 대학 주도의 자율적 혁신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통합적 재정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대학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대학은 2월부터 처장단 TF팀을 구성해 구성원 의견 수렴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대학 혁신 방향으로 과감하고 도전적인 혁신의 비전과 목표 설정, 산학협력 허브 구축을 위한 혁신적인 방안 제시,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무는 유연한 대학 운영 방안 마련, 과감하게 대도약할 수 있는 추진 체계 구축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과보고를 마친 후 차종순 이사장과 박진배 총장, 오재록 교수회장, 이덕수 직원회장, 배지훈 총학생회장이 단상에서 글로벌대학 혁신 선언문을 낭독하며 글로벌대학 30의 추진 의지

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 연공상과 우수교육자상, 우수연구자상 등 7개 부문에 대한 수상이 진행됐다. 교직원 60여 명이 수상했고, 산학협력과 지역인재 양성에 이바지한 기업인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한편, 같은 날 온누리홀에서 박성규 유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에 대한 명예박사 수여식이 진행됐다. 박성규 대표이사와 윤형주 이사장에게 각각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와 명예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 스승의날 감사 오찬

지난 5일(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스타타워 3층 교직원 식당에서 2023학년도 스승의날 감사 오찬을 진행하였다.

1963년부터 시행된 스승의날이 60주년을 맞이하였고, 1964년 전주대학교 개교 후 59번째 스승의날을 맞는 스승의날 감사 오찬 행사였다. 학생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교내 교·강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뷔페 형식으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였다.

코로나가 완화되어 교원들을 위한 오찬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대면하여 식사 자리를 가진 교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하며 식사하였다. 오찬에는 박진배 총장, 주요 보직 교수를 비롯하여, 많은 교수들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벽에는 '스승의날을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표어가 적힌 현수막을 걸어 식사하는 동안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시각적으로도 전달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이번 스승의날을 맞아 교수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학과 발전에 기여하는 교수님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전하였다.



| 조하원 기자(hawon2004@jj.ac.kr)

## 글로벌 대학 선정을 위한 노력

박진배 총장은 ㈜테크 카본과 ㈜정석 케미칼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기업의 현황 및 채용계획을 들었으며, 도내 기업들과 산학 협력 연구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정석케미칼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 시장 확대 계획에 따라 산학 연구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테크 카본은 '탄소 복합재 기술 개발 강화 및 미래 탄소중립 이행 및 지구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박 총장은 전북 도내 우수 기업들과의 산학 협력을 강조하고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산학 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산업 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도내 기업들의 우수한 경쟁력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에 취업할 기회를 만들어 인재 유출 방지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교육부에서 '글로벌 대학 30'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공모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지난 4월 28일 김관영 전북도지

사와 전북 도내 총장들이 모여 전략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와 박진배 총장을 포함하여 전북 도내 12개 대학 총장이 모여 '글로벌 대학 성공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글로벌 대학 30'이란 비수도권 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침체한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교육 개혁과제이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2023년 10곳, 2024년 10곳, 2025년과 2026년에는 각 5곳으로 총 30개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략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가치를 지닌 선도대학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대학도 자체적으로 지난 5월 4일에 예술관 JJ 아트홀에서 개교 59주년 기념식과 더불어 글로벌 대학 선포식을 개최하며, 지난 3월부터 글로벌 대학 추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 공정무역 동아리, 세계 공정무역의 날 맞이 캠페인 진행

지난 9일(화) 소셜벤처 드림빌 앞에서 공정무역 동아리가 세계 공정무역의 날을 맞아 공정무역 커피를 나눠주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공정무역을 지지하는 서명을 하면 공정무역 커피를 간편히 즐길 수 있는 드립백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착한 소비'로 불리는 공정무역은 제3세계 생산자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윤리적 소비 운동으로서, 현재까지 커피와 설탕, 바나나, 코코아 등 세계 10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공정무역 커피는 일반 커피와 비교해 커피 생산자의 수익이 최대 5% 이상 향상되고 유통 과정을 줄여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등 여러 이점이 있다.

공정무역 운동은 세계 2080개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전주시를 포함해 12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2008년부터 시작된 공정무역대학 선정은 옥스퍼드브룩스대학교를 시작으로 세계 여러 대학이 지역 내 공정무역 운동을 선도하고 있다. 우리 대학도 2019년 12월에 공정무역대학으로 인증됐다. 이는 국내 최초로 아시아에서 5번째로 선정된 것이었다.



|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 성년의 날 행사

지난 15일, 우리 대학은 성년의 날을 맞아 '성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총학생회, 국민연금공단, 우리은행 그리고 전주시가 연합하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관별 1대1 상담 부스, 성년의 날 체험 부스 그리고 공기업·금융권 연합 토크콘서트까지 총 3가지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 대학은 성년이 된 학생들을 축하함과 동시에 첫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했다고 전했다.

1대1 상담 부스는 국민연금공단, 우리은행, 전주시, 교내 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학생회관 일대에서 사전에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관별 소개, 자산관리, 미래 설계 그리고 창업·취업 등 학생들이 변화해 가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면담을 진행했다.

성년의 날 체험 부스는 총학생회에서 성년의 날을 기념하여 학생회관 일대에서 키싱, 향수, 장미 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상품과 함께 학우들에게 축하와 응원을 전했다.

공기업·금융권 연합 토크콘서트는 학생회관 수퍼스타홀에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우리은행이 연합하여 진행했다.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각 기관과 제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또한, 자산관리, 취업, 진로, 노후설계 등 성년이 된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해주는 질의응답식 토크를 진행했다. 특히, 우리 학

생들이 직접 느끼지 못하는 근무 환경이나 직장 제도 그리고 취업 전략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박진배 총장은 '학생 여러분들이 이번 콘서트를 통해 소중한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서 먼 훗날 우리 대학 동문으로서의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대학과 기업이 힘을 모아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하늘 기자(neul0603@jj.ac.kr)

## 총장님과 함께 하는 2023학년도 제1차 학사모니터링 성공리에 개최

2023학년도 제1차 학사모니터링이 지난 10일(수) 진리관 109호에서 개최됐다. 박진배 총장과 이상행 학생취업처장, 차진아 교무처장 등 학교 관계자 7명과 학생 15명이 모인 가운데 팀별로 조사한 학내 문제점을 발표하고 개선을 위한 토의가 이어졌다.

학사모니터링은 2004년 처음 운영된 이래,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학내 시설과 정책, 제도 등에 대해 개선할 점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와 직접적으로 소통해 학사 운영의 질을 높이는 제도이다. 코로나 19 발병 이후 축소 진행 또는 미개최가 이어지다 올해부터 활동 정상화되었다.

1차 회의를 위해 각 팀은 선정된 주제에 관련된 부서와 구역을 방문하며 개선사항을 파악했다. 이후 회의 전까지 업무담당자와 소통하며 주제에 대해 의논과 해결 방안을 조사했다.

1차 회의 발표에서 인포런팀(팀장 김순용)은 학내 휴식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학생 수에 비해 휴식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인포런팀은 학생회관 앞 흡연구역을 벤치와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를 갖춘 개방된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서관 내 컴퓨터 공간을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교내 호수의 수질과 주변 산책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내 산책로에 자동 인식 가로등과 노래가 재생되는 스피커 설치, 자판기 추가 설치 등을 주장했다.

시그니엘팀(팀장 최지수)은 대학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학생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기에 재학생들의 높은 만족도와 적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학 생활 만족도 구분을 5가지(교육, 대학 생활 환경, 대인관계, 자기 계발, 취업)로 나눠 학

우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머리팀(팀장 손현)은 교내 시설 및 서비스 관련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그중 이동권에 중점을 두고 조사했는데, 학생회관-스타타워 가로수길의 인도에 설치된 보도블록이 몇몇 부분 훼손돼 휠체어 탑승자를 포함해 도보로 이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협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벤처창업관-정문 사이에 심어진 나무들의 가지가 인도까지 자라 보행자의 어깨 높이까지 내려온다고 말했다. 추가로 학생회관 앞 회전교차로는 시내버스가 택시, 승용차가 승차차하는 장소로 전략했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위험하게 차량 사이를 오가는 등 '무법지대'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필요하고 제도적인 보완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 1인 가구 증가 변화에 발맞추는 전주시

올해 3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1·2인 가구의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에 비하면 4배가량 확대된 수치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전주시는 1인 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주거침입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올해 4월에 처음으로 시작했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최근 주거지를 위협하는 생활 밀착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인 가구 주거 안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도 시민

들의 안전을 세심하게 살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에서 65세 이하 1인 가구 또는 한 부모·모자가정 중 1억 원 이하의 전·월세, 임대주택 거주자이다. 그중에서도 주민등록상 1인 가구와 한 부모·모자가정으로 기재 되어 있는 자가 우선 순위가 된다.

지원 물품으로는 건물 현관 등에 설치 외형 CCTV 설치,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이 있다. 단, CCTV의 경우 아파트 등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와 단독주택은 제외된다. 설치할 수 있는 기기는 CCTV

가 총 40가구, 안심 장비 총 80가구이다.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전주시 시민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문의는 전주시 여성가족과(☎063-281-5031)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 가정의 달



| 김예은 기자(ekfzmsdl@jj.ac.kr)

### 2023년 대학 직장예비군 소집훈련 안내

2023학년도 하계 대학 직장예비군 소집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집훈련은 학생예비군(1~6연 차), 원격영상교육 미이수자 소집훈련, 그리고 이월 보충 훈련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기본 훈련 대상자인 학생예비군은 106여단 훈련대(완주군 소양면 일대 106여단 훈련대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한다. 훈련은 2023년 6월 26일(월)부터 7월 31일(월)까지, 총 10일 동안 진행된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동안 진행된다. 훈련장소로의 이동은 학교 제공 버스를 이용하거나 개인 차량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다.

소집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 대상자들은 사전에 준비물, 개인용품, 의복 등을 챙겨야 하며, 훈련장에서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각종 방역 수칙을 준수

해야 한다. 또한, 훈련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되어 있다.

예비군 대상자들은 본인이 소집훈련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지정된 훈련 일정과 장소에 참석하여 소중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겪는 일부 대학생들의 불이익 사례가 보도되었다. 예비군훈련 계획에 따른 강의 출석 불가와 놓친 강의 자료 제공 문제가 제기되어 대학은 이에 대한 대응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은 예비군훈련에 따른 학업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결 대체 방안과 놓친 강의 자료 제공 등의 대응 방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

해 예비군훈련 참가자들이 학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신문을 읽어 보면 답이 보여요**

1	
2	
3	
4	
5	
6	
7	

1. 1대1 상담 부스는 창업·취업 등 학생들이 ○○○○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면담을 진행했다.
2.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략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가치를 지닌 선도대학 ○○○○○ 하고 있다.
3. 주요 체결내용으로는 ○○○○○의 기능적 체력 향상을 위한 시니어운동프로그램개발 등이 있다.
4. 이외에도 교내 산책로에 ○○○○○과 노래가 재생되는 스피커 설치, 자판기 추가 설치 등을 주장했다.
5. '착한 소비'로 불리는 ○○○○은 제3세계 생산자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윤리적소비 운동을 말한다.
6. 지난 5월 15일(월)에 스타타워 3층 교직원 식당에서 2023학년도 ○○○○ 감사 오찬 행사를 진행하였다.
7. 지구의 위성으로, 햇빛을 반사하여 밤에 밝은 빛을 내는 것을 ○이라고 한다.

※ 929호 정답: 중간고사화이팅

[929호 정답자]  
-가정교육과 김연지 -사회복지학과 김희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나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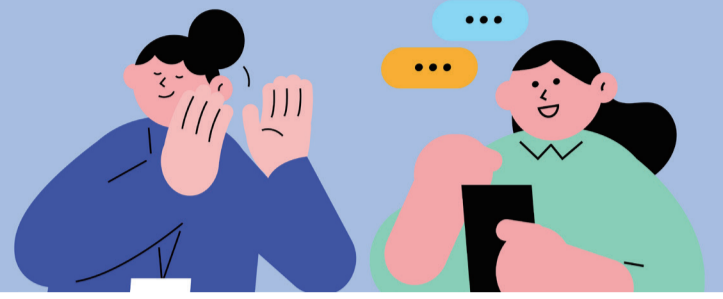
**\* 알 림 \***  
※보다많은학우들에게기회가돌아갈수있도록2회연속당첨은제한하며,동일학과는2명으로제한합니다.  
※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6월 14일(수) 까지 카톡 플러스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3명을 뽑아음료기프트콘을드립니다!

## jnbs 이달의 헤드라인

- 5월 2일, 간호학과 보건교사 교직 과정 설치 교육부 승인 완료
- 5월 4일, '글로벌대학 30' 혁신 선포식 개최
- 5월 4일, 59주년 개교기념식 및 명예박사 학위수여식 진행
- 5월 5일~7일, 전주대 총장배 제1회 전국 태권도 대회 개최
- 5월 10일, 교수선교회 장학금 수여식 진행
- 5월 13일, 교육방송국 개국 40주년 기념식 진행
- 5월 15일, 우리 대학과 함께한 우리은행·국민연금공단 토크콘서트 진행
- 5월 15일, 스승의날 기념 감사 오찬 행사 진행
- 5월 16일, 우리 대학에서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진행
- 인문대학장 안정훈 교수 '국가의 문화력은 인문학으로부터 나온다'

# ‘인문학은 우리가 만든 콘텐츠’

## 안정훈 교수



우리 대학의 인문대학은 무려 39년째 이어왔다. 인문대학은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곳으로 우리가 흔히 들어온 일반적인 단과대학 가운데 하나이다. 한편, 지난 2일에 학칙 개정안이 공개됐다. 인문대학 명칭 변경, 인문대학 소속 학과 신설 및 개편 등의 내용이 있었다. 단과대학 신설은 종종 있었던 일이지만 기존 단과대학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재학생들이 가지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인문대학장 인터뷰를 요청했다. 지난 11일, 인문대학장실에서 약 30분 동안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로 단과대학 명칭 변경 이유, 신설 및 개편된 학과 소개 그리고 콘텐츠와 인문학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였다.

**Q. 인터뷰를 위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인문대학장을 맡고 있는 중국어중국학과 안정훈 교수입니다.

**Q. 이번 학칙 개정안 내용 중에 2024학년도부터 인문대학의 명칭이 ‘인문콘텐츠대학’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문콘텐츠대학에 명칭에 담긴 의미와 개정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A.** 내년이면 우리 대학의 인문대학이 생긴 지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인문대학은 별도 명칭 개편이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인문과 콘텐츠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의 속뜻을 파악하고 나면 콘텐츠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콘텐츠가 아우르는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림이나 부호, 문자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매체를 이용하여 만들어 낸 자료 정보들을 콘텐츠라고 부릅니다.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다움과 인간의 행복,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탐구를 우리는 오래전부터 글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콘텐츠는 인문학을 포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단어의 속뜻이 같은 데도 명칭을 변경하려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인문(人文)은 사람과 무늬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문(文)은 문자의 뜻을 갖기 이전에 ‘무늬’라고 사용되었습니다. 개인마다 갖는 특유의 무늬에 대해 탐구하고 학습하는 것이 인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인문은 고루하고 딱딱한 연구자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인문학은 인문학자들이 현대 문물에 맞게 만든 콘텐츠입니다. 이런 새로운 의미를 전파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쇠신하기 위해 인문콘텐츠대학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Q. 인문콘텐츠대학에 신설되는 ‘웹툰만화콘텐츠학과’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K-웹툰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내 대학 사이에서 웹툰 애니메이션 학과 개설열풍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대학은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는 이미 개설했거나, 지금도 지속해서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대학에 웹툰 학과가 신설되는 것은 우리 대학이

전국 최초입니다. 일반적으로 웹툰 학과는 주로 예술 대학에 소속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웹툰을 미술 분야의 한 종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기 오는 학생들도 미술학원에서 잘 그리면 미술대학에 진학하고, 평범하면 만화로 빠지는 현상이 지속되어 오면서 예술이나 문화 관련 단과대학에 웹툰이나 만화 관련 학과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AI 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손 그림 실력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웹툰의 내용을 더 이상 그림체가 아닌 내용으로 평가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용의 깊이와 교훈적 내용 등 얼마나 디테일하고 철학적인지에 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그릇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쁘게 빚어진 그릇에 담을 음식이 없는 것이 웹툰의 현실입니다. 동양 고전 서사나 서양 판타지 서사를 웹툰에 결집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미술과 인문학의 융합을 통해 현실에 대응하며 더욱 발전된 웹툰·만화를 창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문콘텐츠대학에 웹툰만화콘텐츠학과가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Q. 한국어문학과에서 변경되는 ‘한국어문학창작학부(한국어문학전공, 웹문예창작전공)’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문화강국의 다른 이름은 선진국입니다. 나라의 언어와 문자(텍스트)의 힘이 강할수록 문화강국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문화 수준은 국력과 비례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문과의 성공은 국가의 성공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문과는 매니아층도 있고 신문 방송, PD, 작가 등과 같이 의외로 활용 범위가 넓은 학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어문학과에서 문예 창작 분야를 특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문예 창작은 일정한 수요가 존재합니다. 특히, 요즘은 웹 소설이 인기가 있어 글을 써보고 싶은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웹 소설은 웹툰과 웹드라마까지 서로 상호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재벌집 막내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매체를 이루는 것이 문예 창작입니다. 앞에서 말한 웹툰만화콘텐츠학과와 차이가 있다면 소설과 만화의 차이만 있을 뿐 웹에서의 서사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획안으로도 다른 형태의 결과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학과별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어문학과를 한국어문학창작학부로 발전시켜 기존과 같이 언어와 문화 분야는 한국어문학전공, 문예 창작 분야는 웹문예창작전공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Q. 과거 국어국문학과는 한국어문학과로, 과거 영미언어문화학과는 영어영문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 둘의 변천사가 궁금합니다.**

**A.** 둘 다 나름대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국어국문학과가 한국어문학과로 바뀐 이유는 한국어 교육이 강조되는 추세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5년은 1천 명의 유학생이 입학하던 유학생 전성시대였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강의하기 위해선 한국어 교육이 필수였습니다. 국제교류원에서 운영되는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연수해줬습니다. 유학생의 절반 이상은 경영대, 1/3은 국어국문학과로 진학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국어국문학과를 선택한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특화해주고자 하는 배려에서 한국어문학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영미언어문화학과가 영어영문학과로 바뀐 이유는 과거에는 문과 분야를 나누라고 하면 법, 상경, 인문, 영문으로 나눠 생각했습니다. ‘인문대학은? 영문과!’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영미언어문화학과라는 이름으로 있으니 교수님들은 영

문과보다는 문화학과에 느낌이 쏠려 홍보가 잘 안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학생들에게 영문학과가 좋은지 언어문화학과가 좋은지 직접 물어봤더니 대부분 학생은 ‘학과 정체성을 더욱 쉽고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영문학과가 좋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인문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영어영문학과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Q. 학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문콘텐츠’란 무엇인가요?**

**A.** 저는 인문 콘텐츠를 딱 한 줄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사람 사는 이야기’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Q. 이번 개정안이 인문대학과 인문대학 재학생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A.** 인문대학의 취업 모델이 부족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다수의 취업 모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취업 모델의 부족함을 느끼던 학생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춰서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영역 그리고 새로운 취업 모델을 넓게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Q. 2024학년도에 인문콘텐츠대학에 입학할 예비 신입생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미래 신입생 여러분. 인문콘텐츠대학은 시대 변화를 가장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학사 단위입니다. 여세추이(與世推移)라는 사자성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변화해 나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인문학자들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인문이 낡고 딱딱하고 지루하다는 인식에 대한 책임은 인문학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문학자의 할 일은 오늘날 흐름에 맞추어 고전과 같은 옛 학문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줘야 합니다. 오늘날 방식에 맞도록 새롭게 해석하고 직접 만들어서 전파해 낼 수 있는 인문학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문콘텐츠대학은 신입생 여러분께 ‘여세추이’ 강의 방식을 통하여 인재 양성에 힘을 쓸 것을 약속합니다.

※ 2024 학년도 인문콘텐츠대학 학과 체제※

신학과경배찬양학과  
영어영문학과  
일본언어문화학과  
중국어중국학과  
역사콘텐츠학과  
웹툰만화콘텐츠학과  
한국어문학창작학부  
(한국어문학전공, 웹문예창작전공)

기사 |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하늘 기자(neul0603@jj.ac.kr)  
디자인 | 송단비 기자(danbee425@jj.ac.kr)



# 세계 생활체육인들의 축제

##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세계 생활체육인들이 모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12일(금)부터 지난 20일(토) 전라감영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9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25개 종목에 71개국에서 온 1만 4천여 명의 선수들과 동반자들이 참여해 열전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문화관광을 즐겼다.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이하 '아태마스터스')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에 버금가는 생활체육인의 국제 종합체육 대회이다. 나이와 성별, 국가 스포츠 지위에 상관없이 전 세계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마스터스대회는 월드컵대회와 대륙별 대회로 나뉜다. 월드컵 마스터스대회는 1985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처음 개최되어 현재까지 9회차를 진행했다. 동계 월드컵 마스터스대회는 2010년 슬로베니아 브레드에서 처음 개최되어 현재까지 3회차를 진행했다. 대륙별 대회는 유럽과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현재까지 유럽은 3회, 아메리카는 2회 진행했다. 아시아태평양은 2018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처음 개최해 전라북도가 두 번째 순서로 대회를 개최했다. 다음 대회는 2026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주올림픽경기장에서 진행된 개회식은 '새로운 변화, 희망의 시작'을 주제로 시작됐다. 행사는 식전 행사와 공식 행사, 성화 점화, 식후 행사 순으로 진행했다. 식전 공연은 아태마스터스 홍보대사인 나태주와 진성 등 3명의 가수가 공연을 선보였다. 공식 행사는 개회식 통고를 시작으로 선수단 입장이 진행됐다. 선수들이 입장하자 관객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했다. 선수들 역시 관객을 향해 손을 흔들고 사진 촬영을 하며 반가움을 표했다. 이어진 주제공연에서는 윤점용 서예가의 대형 서예 퍼포먼

스와 진성, 김주리, 어린이 합창단의 주제가 합창, 태권도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개회식장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후 김관영 조직위원장의 개회사와 세르게이 부브카 IMGА 회장 축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환영사가 차례로 진행됐다.

김관영 조직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단절되며 2022년에 예정되었던 이번 대회도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 대회가 단절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희망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는 이념과 국경, 인종과 언어를 뛰어넘어 우리가 모두 단단히 연결되어 있고,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개회사를 전했다. 이후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개회선언과 함께 대회가 개막되었다.

성화 점화는 익산 미륵사에서 채화(採火)된 성화는 도내 14개 시·군을 거쳐 드론 연출을 통해 성대한 점화식을 했다. 이후 오마이걸과 영탁의 축하공연을 끝으로 개회식이 마무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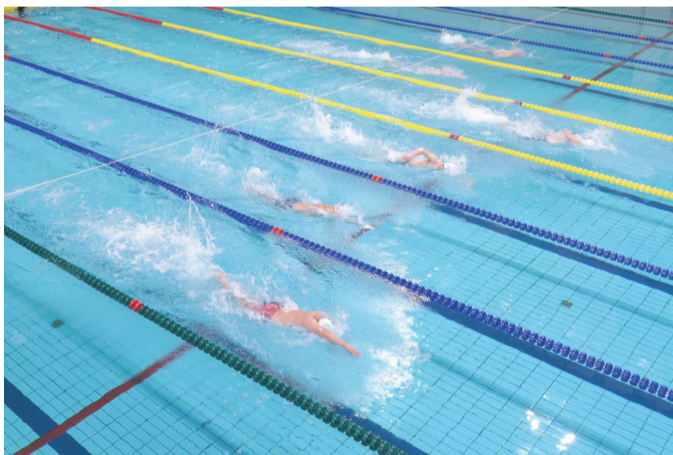
배드민턴



우슈



농구



수영



스쿼시



철인3종경기



전라감영에서 열린 폐회식은 전북도립국악원의 식전 공연과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IMGА 회장 환송사와 조직위원장 폐회사, 차기 개최지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회기 이양 및 전달

이 진행됐다. 이후 식후 공연과 함께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막을 내리게 됐다.

2019년 대회 유치 후 갑작스레 덮쳐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태마스터스는 큰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마스터스대회는 일반적인 국제 스포츠대회와 다르게 참가자가 직접 신청하고 비용도 직접 부담해야 해서 선수 모집에도 큰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전북도의 여러 노력 끝에 대륙별 대회 중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덕분에 곧 다가오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더불어 국제대회 유치 및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하지만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점과 운영에 미숙한 점이 많았다는 평도 적지 않았다. 이번 대회를 대륙별 대회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유치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개최를 한 차례 연기했

다.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더불어 예상보다 적은 도내 문화관광 참여도가 큰 경제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또한 도내 주민들의 관심도 적어 국제대회 개막식과 폐막식에 특정 연예인 팬이 자리를 채우는 등 다소 아쉬움이 컸다. 코로나19 이후 도내에서 열린 첫 국제행사인 만큼 잘한 점과 못한 점이 분명한 만큼 오는 8월 열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하는데 타산지석 삼아 더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노려야 한다.



# 환경 보호 한 걸음, 어떻게 내딛을까

돌아오는 6월은 환경의 달이다. 환경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해야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환경 보호 초심자에게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제로웨이스트 5R 원칙'을 소개하겠다.

먼저 제로웨이스트 5R 원칙에서 제로웨이스트란 모든 제품, 포장 및 자재를 태우지 않고,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토지, 해양, 공기로 배출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생산, 소비, 재사용 및 회수를 통해 모든 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제로웨이스트 5R 원칙 ]

### 1. 거절하기 (Refuse)

불필요한 물건을 거절하는 원칙이다.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을 거절하거나 종이 영수증 거절하기, 광고 우편물이나 무료 사은품 거절하기 등의 방법이 있다.

### 2. 줄이기 (Reduce)

쓰레기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원칙이다. '1+1'과 같이 행사에 현혹되지 않고 꼭 필요한 물품만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식을 시켜 먹을 때는 배달을 시키는 것이 아닌 직접 매장에 방문해 다화용기에 음식을 담아오는 '용기내 캠페인'을 실천하는 방법, 카페에 갈 때 일회용 컵과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텀블러와 다회용 빨대를 사용하는 방법, 공중화장실에서 손 씻고 화장지로 닦지 않고 손수건으로 닦는 방법 등이 있다.

### 3. 재사용하기 (Reuse)

음식이나 물품을 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쓰레기나 플라스틱이 생기게 된다. 이 원칙은 이러한 쓰레기를 재사용하는 원칙이다.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 아랫면은 화분으로 윗면은 깔때기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더하여 '리필 스테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내용물을 다 사용한 용기를 버리지 않고 세척하여 리필 스테이션을 소유한 매장으로 가 세제, 화장품 등 내용물만 구매하여 돌아가는 방법이다.

### 4. 재활용하기 (Recycle)

올바르게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고 다 쓴 물건을 다시 활용하는 원칙이다. 물건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과 물건을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이 있다. 업사이클링의 예시로는 페플라라스틱을 섬유로 만들어 옷으로 만드는 것, 폐현수막으로 가방이나 지갑을 만드는 것 등이 있다. 직접 업사이클링 물건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필요한 제품을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구매하는 것도 또한 좋은 방법이다.

### 5. 썩히기 (Rot)

자연 분해되는 물건을 사용하는 원칙이다. 이는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이다. 미세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쓰레기는 매립되어 바다까지 흘러나가 바닷속을 떠다니며 해양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쌀 빨대, 비닐 봉지 대신에 옥수수 껍질로 만든 비닐, 일반 물티슈가 아닌 천연 펄프 100% 물티슈를 사용하는 등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제로웨이스트 5R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다. 더하여 이 원칙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전주의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소개해 보겠다.



▲ '늘미곡' 네이버 지도 업체 등록 사진


늘미곡은 전주 최초의 제로웨이스트 매장이다. 여러 제로웨이스트 물품을 판매하며 전라북도 호남 평야에서 생산된 신선한 잡곡 소분 매장을 기반 삼아 잡곡 판매도 하고 있다. 또한 2023 자원순환 프

젝트를 진행하여 쓰레기로 버려질 뻔한 물건들을 수거 조건에 맞춰 늘미곡으로 가져오면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병뚜껑,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3P를, 비닐봉투, 우유팩/멸균팩 등은 5P를, 유리병(500mL 이상), 에코백, 세제통 등은 50P를 적립해준다. 이러한 늘미곡의 자원순환 프로젝트는 작은 쓰레기가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결고리 형식으로 손님들에게 받은 물건을 필요한 곳에 기부하고 손님에게는 포인트를 제공하여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전화: 070-4240-0225  
 - 영업: 화~토 12:00~19:00, 일,월 정기휴무  
 -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로 16, 상가2동 1층 1호

이렇게 제로웨이스트 5R과 전주의 제로웨이스트 매장인 늘미곡을 소개했다. 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지만 거창한 것부터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사소한 것 하나부터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앞서 말한 제로웨이스트 5R을 기억하고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둘러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기사 | 조하원 기자(hawon2004@jj.ac.kr)  
 디자인 | 김지혜 기자(rwg1130@jj.ac.kr)



우리집

불안한 듯 숨을 거칠게 쉬며 눈을 양쪽으로 굴리는 어린아이들 사이에 두고 아랑곳하지 않고 언성을 높이는 부모님의 대화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스크린이 암전되고 떠오르는 세 글자. 바로 영화의 제목, '우리 집'입니다.

학교에서 받은 선행상을 빌미로 엄마, 아빠, 오빠에게 가족여행을 가자고 설득하는 주인공 하나. 하지만 공감해 주는 사람 하나 없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 가족은 늘 싸우는 부모님과 그런 부모님에게 지친 대로 지친 오빠, 그리고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는 이유도 여행을 가면 좋았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는 유진이가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선행상을 받았던 하나답게 언니를 찾아주었고, 며칠 뒤에는 유진의 언니인 유미가 길거리에서 정신없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고 불러 세웁니다. 유미는 유진이 아픈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 무작정 거리를 걷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유진을 돌봐주고 집을 잠깐 살펴보는데, 집 안에는 어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한 집입니다.

하나네 또한 그렇습니다. 아빠에게 전화한 의문의 여성은 마치 하나의 아빠와 교제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당황한 하나는 아빠의 휴대전화를 잠동사니를 보관했던 상자에 숨깁니다. 그 상자를 유미네에 숨기며, 자매와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미네가 이사 간다는 걸 듣게 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잦은 이사에 지친 자매가 입을 엽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닫혀있던 하나의 입이 열립니다. '우리 집도 이상해.', '내가 지킬 거야, 우리 집. 너희 집도.', '뭐든 하나하나 쌓다 보면 되지 않을까?' 아이들은 그렇게 서로를 이어줬던 상자를 하나, 하나 쌓아 나갑니다. 하나는 결심합니다. 아빠와 연인 관계로 보였던 여자에게 장난 전화를 거는 일부러 시작해서 고철과 가꾸지 않은 화분으로 지저분한 유미네 빌라 앞을 가꿔 집주인 아주머니를 기쁘게 하는 일, 오빠를 설득해서 가족여행을 가자고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 유미네가 팔리지 않게 집을 보러온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 등, 계획은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마침내 아빠의 허락을 받고, 일이 바쁘다고 일관해왔던 엄마도 가족여행을 가자는 하나 말에 귀 기울여 주게 되는데... 과연 하나는 가족여행을 가고,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쌓아 우리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와 유진이, 유민이는 우정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을까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아이들의 시선에서 풀어낸 가족 영화가 궁금하다면,

**오늘, 이 영화 어때요?**

- 제목: 우리 집  
 - 감독: 윤가은  
 - 장르: 드라마/어린이  
 - 출연: 김시아, 최수인, 설혜인  
 - 러닝타임: 1시간 32분  
 - 개봉: 2019년

기사 | 전지은 기자(uptoillie20@jj.ac.kr)  
 디자인 | 김지혜 기자(rwg1130@jj.ac.kr)

## 전세사기



## '이것'으로 대비하자



## - '전세' 한국에만 있는 제도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전세와 관련한 외국 기사에서는 한국어 발음 그대로 jeonse로 쓴다. 전세는 보증금을 맡기고 타인의 집에 임차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을 말한다. 전세는 월세를 따로 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차별적인 특징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는 전세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한 지역에서 일본인이 거주하고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여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집값이 치솟았다. 목돈이 없던 집주인은 예비 세입자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세입자는 주택가격 일부를 빌려주는 대신 그 집에 집세를 내지 않고 사는 형태로 일종의 사금융이었다.

이후 6.25 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의 주택난이 심화하였고, 전세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 산업화 시기 주택가격은 비싸고 대출금리도 높았기에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리면서 목돈인 필요한 임대인과 적은 금액으로 살집이 필요한 임차인의 수요가 맞물려 거래가 늘어났다.

전세는 소유한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임차 주택에 거주하고, 목돈을 만들어 내 집 마련을 쉽게 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현재는 예전에 비해 전세 거래가 줄었다. 그 이유는 주택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으며, 주택가격이 안정되었고 주택담보 대출 시장의 확대로 사금융으로써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

그런데도 전세는 월세를 매달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와 비교했을 때 사회초년생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이다. 그러나 최근 인천, 서울 강서구 화곡동, 경기도

동탄 신도시에서 거대한 규모의 전세 사기가 나타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 전세 사기 주요 특징

올해 발생한 전세 사기 주요 특징으로는 집주인을 바꿔 '경매'로 넘기고 세금 체납으로 '파산'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사기 방식이 존재한다. 주택 유형은 원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과 같은 도시형 생활 주택의 유형에서 나타났다. 또한, 전세 시장에 정보가 취약한 청년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연립다세대가 밀집된 곳에서 발생하였으며, 공인중개사 건축업자 감정평가사 조직적인 행태가 보였다.

## - 우리 지역도 안전하지 않다.

올해 전주에서도 전세 사고가 발생했다. 3월 기준 4건이 발생하였으며, 다주택의 경우에는 42건 발생했다. 또한, 전주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전국비율보다 높다. 언제든지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통 전세보증금이 매매가 70% 이상일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매매 시세가 전세보증금 밑으로 떨어지거나 경매로 넘어갈 때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테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평균은 67.5%이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79.4%이고, 연립·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전국평균은 77.1%이지만 전북은 87.2% 전국평균을 웃도는 상황이다.

지난 3월호에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을 알아봤다. 전세 계약을 할 때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 보증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 - 전세 계약을 한다면 꼭 알아야 할 전세 보증보험제도

어느 날 갑자기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으로 부동산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전세 보증보험이란 전세 기간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미리 가입한 보험사에서 이를 지급해 주는 보험으로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전세 보증보험은 3곳의 회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회사별 가입 가능 금액 및 조건 등이 조금씩 다르다. 전세 보증보험을 비교해 봄으로써 나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보험상품을 찾아야 한다.

## 전세 보증보험 간단 소개

## 1. HUG 주택 도시보증 공사 전세 반환보증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기준 7억 원,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 보증료율(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보증 금액\*보증료율\* 전세 계약 기간/365) 보증 금액 주택 유형, 부채 이력에 따라 연 0.115%~0.154%이다.
- 계약 기간의 1/2이 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HUG가 보증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 은행 모바일 앱과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저소득, 다자녀, 장애인 등 사회 배려계층, 모범납세자, 모바일 보증 이용 등 여러 방식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2.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지킴 보증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기준 7억 원,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 한국 토지주택공사 별도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 보증료율은 우대가구(다자녀, 신혼부부 등)에 따라 0.02~0.04%로 차등 적용한다.
- 계약 기간의 1/2이 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 3. SGI 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아파트 계약의 경우 보증금 제한이 없다. 그러나 아파트 외 주택 계약을 하는 경우 10억 원 이하일 경우 이용할 수 있다.
- 보험료율이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연 0.183%이며 기타 주택은 0.208%이다. 단,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상품 관련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위의 두 상품과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의 1/2이 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법인용과 개인용이 있다. 임차인이 개인(개인사업자)이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법인이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법인용)을 이용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HUG 안전 전세 앱 출시

정부에서는 지난 2월 범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계약 단계별 전세 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전세 사기 단속·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서 '안심 전세' 앱을 소개했다. 신축 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 체납 정보 등 전세 사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편리하게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7월까지 점차 정보 공개범위를 점차 넓힐 예정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전세 사기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전세 보증보험을 알아두고 관련 절차들을 미리 알아두어 대비해야 한다.

기사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디자인 | 김지혜 기자(rwg1130@jj.ac.kr)



어느덧 5월이 되어 날씨가 풀리고 여름에 가까워지고 있다. 노출이 많은 여름에 대비하기 위해 다이어트에 나선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바쁜 현대사회에서 식단과 운동계획을 철저히 지키며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기 어렵다. 또, 급하게 다이어트를 하느라 건강에 무리를 주며 뼈더러도 다시 돌아오는 요요현상을 겪기 일쑤다.

다이어트를 할 때 매체에 올라오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따라 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아이돌 다이어트 식단, 아이돌 다이어트 방법 등 항상 마른 몸매를 유지하는 아이돌을 본보기로 삼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다.

그 방법들이 무조건 좋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간을 넉넉하게 잡지 않고 단기간 많은 감량을 위해 절식을 하거나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 등의 방법들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런 경우 영양소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결핍으로 인한 어지럼증, 피부발진, 무기력함, 탈모 등의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일시적으로 체중감량이 되더라도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들어오는 에너지를 그대로 축적하여 요요현상이 올 수 있으며, 기초대사량이 줄어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하게 된다.

무리한 체중감량보다는 몸의 균형 회복과 교정을 함께 생각하고 건강을 챙기며 요요현상이 오지 않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좋다.

하루에 먹어야 하는 성인 권장 열량은 통상 2,000~2,500Kcal 정도로, 성인 남자는 2,500~2,600Kcal, 여자는 2,000~2,400Kcal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권장 열량보다 더 음식을 섭취하면 살이 찌 수 있으며 반대로 권장 열량보다 적게 섭취 또는 운동으로 열량을 소모하면 살이 빠질 수 있다. 따라서 권장 열량 이내로 식사해야 하며 주로 폭식이나 간식, 야식을 먹는 습관을 교정해야 한다.

전문의들 말에 의하면 아침을 반드시 챙겨 먹고 저녁을 줄여야 한다고 한다. 아침을 거르면 당과 인슐린이 낮아져 피로감을 크게 느끼게 되고 이것이 점심시간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근육량이 줄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체중이 늘기 쉬워진다. 우리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포도당인데 밤사이 낮아진 혈당을 아침 식사가 보충해 줌으로써 집중력이나 기억력, 사고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편 저녁 식사량을 줄여야 하는 것은 저녁 시간대의 활동량이 적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식사량이 많더라도 그만큼 에너지를 소모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저녁 시간 이후에는 TV를 보거나 잠을 자는 등 에너지를 소비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특히 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는 사람들은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을 자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몸 자체가 지방을 축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저녁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다이어트와 함께 건강을 챙기려면 물을 많이 마시고 음료수를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물 대신 음료수나 생과일주스를 마시는 습관이 비만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일의 풍부한 섬유소는 대장 운동이 활성화되어 비만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주스로 만들면 씹어서 먹을 때보다 포만감이 늦게 오기 때문에 40% 정도 더 많은 양을 먹게 되어 다이어트에 해가 될 수 있다.

‘제로 소주’, ‘제로 탄산음료’ 등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감미료를 사용하여 단맛은 그대로인 제로 슈거 식품이 열풍이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큰 죄책감 없이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를 마시곤 한다. 하지만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설탕 대신 감미료를 사용하는 것이 꼭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니며 다이어트 효과도 없다고 발표했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감미료가 오히려 당뇨나 심장병 발병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고, 영양적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만이 나는 식품 자체를 적게 먹는 습관을 갖추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요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살 빼는 데 효과가 좋다는 공복 유산소 운동을 위해서다. 유산소 운동은 운동 중 산소 공급을 통해 지방과 탄수화물을 에너지화해 소모하게 하는 전신운동을 말한다. 공복 유산소 운동은 30분~1시간 정도로 했을 때 체중감량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유산소 운동은 탄수화물과 지방이 함께 타서 먹은 게 없으면 체내 소모할 탄수화물이 없어 대신 지방을 태워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공복에 운동을 오래 하면 탄수화물과 지방 외에 단백질을 태우면서 근육량을 감소

시킬 수 있다.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줄어 오히려 살이 찌기 좋은 체질로 변할 수 있고, 공복 운동 후에 공복감이 더 심해져 과식이나 폭식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운동이라도 오랜 시간 하는 것이 체중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생각하면 운동과 식단 조절만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이 둘만큼 중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있다. 바로 수면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케이스 웨스턴대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5시간 이하로 잠을 잔 여성은 7시간 이상 충분히 잔 여성보다 평균 15kg 정도 체중이 더 증가한다고 한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살찌기 쉬운 체질로 바뀐다. 수면이 부족하여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뇌는 지방과 당 섭취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인식한다. 이에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을 늘리고, 억제하는 호르몬을 줄인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오래 자는 것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다. 가장 적당한 수면시간은 6~8시간이며, 폭 잠들기 위해선 잠자리에 들기 전 45분에서 1시간은 스마트폰이나 TV 등 청색광 방출 기기를 보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숙면 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육과 내장 기관 움직임이 활성화되어 열량을 효율적으로 소모할 수 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현재 자기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꼭 필요한 영양소 중 현재 부족한 영양소를 파악하여 균형 있게 섭취하며, 나이와 체중,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수면시간과 운동량을 조절하여 몸의 균형이 살찌기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 리듬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 | 최혜림 기자(chr9460@jj.ac.kr)  
디자인 | 조희주 기자(zlxl020@jj.ac.kr)



▼송해근 교수님



▼이재준 교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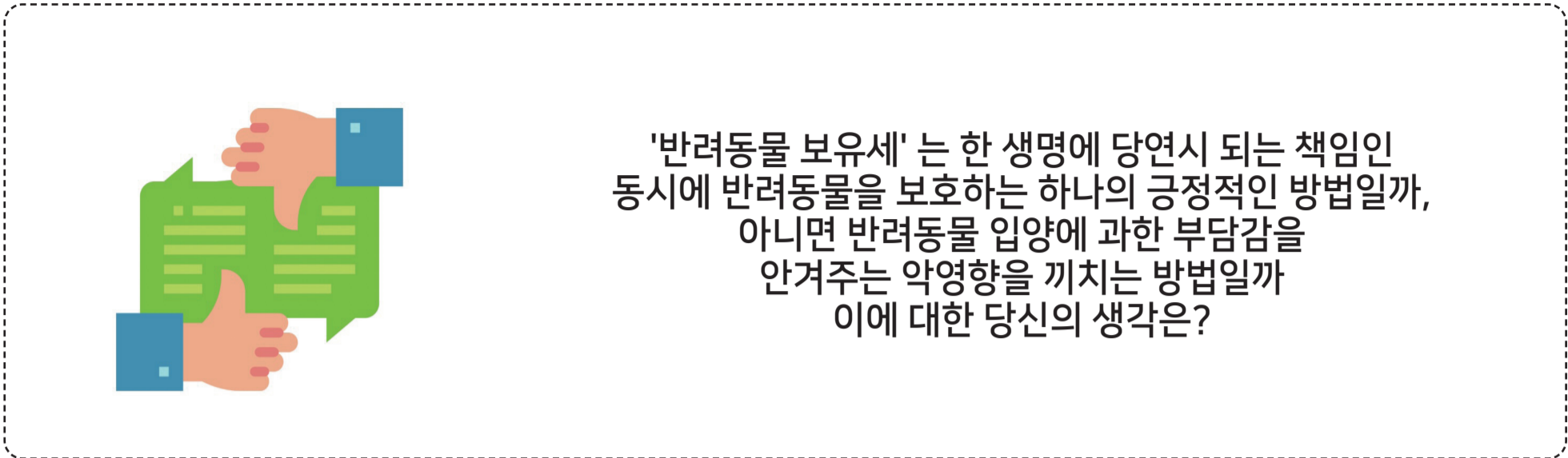
전주대학교 교육방송국 JEBS에서 정기적으로 새학기마다 제작하는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은 전주대학교에 새로 부임한 신임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인터뷰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는 우리 대학에 새로 부임하신 교수님에 관해 소개하고 알게 됨으로써 어색함을 떨쳐내고 학생들이 교수님과 친밀감을 형성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되었습니다.

2023년 1학기에 새로 부임한 기술경영공학과 송해근 교수님, 소방안전공학과 이재준 교수님, 간호학과 김미희 교수님, IT금융학과 황인준 교수님, 전기전자공학과 이동욱 교수님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송해근 교수님과 이재준 교수님 영상은 전주대학교 교육방송국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다른 교수님의 소중한 인터뷰 영상 역시 앞으로 올라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반려동물 보유세, 필요한가 ?



## 생명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유기 동물'은 보호자 없이 버려진 동물을 말하고, 유기 동물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기된 반려동물은 최악의 경우 로드 킬에 당하거나 굶어 죽게 되고, 최선의 경우에는 보호소로 이송되어 다른 곳에 입양가게 된다. 그러나 보호소로 이송되어 입양되는 반려동물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입양해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안락사하게 된다.

유기 동물은 우리나라뿐만 아닌 반려동물이 존재하는 나라라면 모두가 고민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제기된 방안은 바로 '반려동물 보유세'이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실제로 대다수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윤석열 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찬성하는 사람들만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거세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한다. 첫 번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이미 상당한 돈이 들고 있고, 책임감을 느끼고 키우는 보호자들이 많이 있는데 보유세를 똑같이 걷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두 번째,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반려동물용품들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보유세가 지 걷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진다. 세 번째, 보유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버려지거나 다친 동물들을 보고도 구조하는 경우가 없어진다.

하지만 이런 의견들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해야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첫 번째로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말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반

려동물은 갖고 싶을 때 갖고, 버리고 싶을 때 버리는 물건이 아닌 하나의 생명이다.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생명을 양육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키우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는 목표이다. 두 번째로 매년 유기 동물 보호 센터 운영에 약 200억 원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지 않으면 유기 동물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보호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세금이 증가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품종을 만들기 위해 동물을 공장처럼 무분별하게 번식시키는 것을 예방하여 동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번식 개체 수를 조절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길을 걸다가,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다가 떠돌고 있는 유기 동물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동물은 인간에게 마음을 쉽게 주고, 받았던 사랑을 쉽게 잊지 못한다. 자신의 무책임함으로 하나의 생명이 버려지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악순환은 그만 반복되어야 한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이 살기 좋아지고 있는 만큼 같은 생명인 동물들도 사랑받으며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사 | 강수아 기자(xv0915@jj.ac.kr)

## 반려동물은 모두의 가족

우리의 사회가 점점 고령화 시대로 나아가고,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동물은 사람의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이자 가족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노인층에서 반려동물은 외로움 감소와 더불어 장기간 생활하면 기억력 감퇴와 인지 능력 저하 등을 늦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만약 '반려동물 보유세'가 실현된다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제쳐두고 취약계층에는 가족을 포기해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다.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월평균 지출하는 비용은 약 13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일반세대 지출 비용과 큰 차이가 없는 값이며, 취약계층은 반려동물을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 돈을 빌린다고 답했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실현이 된다면 취약계층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과연 돈이 반려동물을 기를 자격을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까? 쟁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버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미 부담스러운 관리 비용 때문에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세금까지 부과한다면 동물을 유기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보유세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입양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진다. 입양은 유기 동물 문제 해결과 동물 복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보유세 도입으로 인해 입양에 부담이 생기면 유기 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동물 보호 시설이나 인도적인 대

처 방법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다른 쟁점 중 하나는 정확한 세금 부과 방법과 사용 용도이다. 어떤 종류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세율을 책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할 때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반려동물은 많은 사람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나 동물 복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쟁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기사 |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디자인 | 조희주 기자(zlx020@jj.ac.kr)

# <사·자·성·어> 사랑을 실은 자전거 타고 성품채플 어디든지 간다!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8일, 전주대학교 선교지원실에서는 ‘<사·자·성·어>-사랑을 실은 자전거 타고 성품채플 어디든지 간다.’를 진행하였다. ‘<사·자·성·어>’는 자전거를 통해 성품채플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을 찾아가 자녀가 보낸 사연과 선물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며 일깨워주는 프로젝트이다. 4박 5일간 전주대학교를 시작으로 하여 마지막 도착지인 여수까지 자전거로만 진행하였다. 이번 ‘<사·자·성·어>’에 참여한 선교지원실 오항제 직원을 인터뷰하고자 한다.

Q. 안녕하세요. 이번 ‘<사·자·성·어>’는 학생들의 사연을 듣고 부모님을 찾아가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자·성·어>’를 진행하며 경험하고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A. 네, 지난 시즌 1~6까지는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과 방향이 본교 학생이었던 것도 무척 좋았지만, 학생의 사연을 통해 부모님을 찾아가 자녀의 마음을 전하고, 학교가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과 감동을 선사하는 것은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맞보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Q. ‘<사·자·성·어>’는 자전거로만 이동하는 프로젝트였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며 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A. 사실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구름이 해를 가려 주어서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감사한 경험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 힘들음을 이기고 사연 주인공의 부모님을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피곤이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사·자·성·어>’를 마무리 하며 느낀 감정이나 메시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났던 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사연을 읽어드릴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지시거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고 자녀에 대한 고마움과 먼 곳까지 자전거를 타고 찾아와주신 교수님과 학교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 가득 표현해주셨습니다. 또한 이진호 교수님께서도 부모님이 감동하셨던 일면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과정 중 한 학생은 교회에도 출석해보겠다고 하는 감사한 상황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학생을 위해 사회에 공헌하고 이바지하는 일원이 되도록 좋은 교육과 배움의 터전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학생과 부모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사랑으로 한 가정과 한 학생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건학이념의 본질을 실재적이고 의미 있게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선교지원실 오여찬(ssd5206@jj.ac.kr)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막4:35, 36). 군중에게 많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다. 거센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배가 파도에 뒤집히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고물에서 배개를 베고 주무신다. 참으로 신비롭고 고요하다.

▼ ‘아기는 있는 힘을 다하여 잔다’라는 시이다. 김기택 시인은 주변의 온갖 소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새근새근 잠을 자는 아기의 모습을 노래한다. “아기는 있는 힘을 다하여 잔다. 부드럽고 기름진 잠을 한순간도 흘리지 않는다. 젖처럼 깊이 빨아들인다. 옆에서 텔레비전이 노래 불러대고 아빠가 전화기에 붙어 회사 일을 한참 떠들어대도 아기의 잠은 조금도 움츠러들거나 다치지 않는다. 어둠속에서 수액을 퍼 올리는 뿌리와 같이, 잠은 고요하지만 있는 힘을 다하여 움직인다.” 하늘나라를 살아내는 참으로 평온한 모습이다. 시인은 있는 힘을 다하여 자고 일어난 아기의 모습을 그린다. “남김없이 잠을 비운 아기가 아침 햇빛을 받아 환하게 깨어난다. 밤사이 흘쩍 자란 풀잎같이 이불을 차고 일어난다. 밤새도록 잠에 찌기어 맑은 얼굴, 웃음 말고는 다 잊어버린 얼굴이 한들거린다.” 아침에 깨어나는 아기 얼굴에 풀잎 위에 맺힌 이슬이 아기의 목구멍에서 굴러 나와 아침공기를 낭랑하게 울린다. 아기는 근원적 신뢰,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한다.

▼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막 4:38). 제자들의 성화에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하여졌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했다.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막 4:41).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기에 일상에서 쫓이지 않는 조그만 풍랑에도 그저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 잠들 수 없는 네 중심’을 두려워하라고, 아기에게서 ‘하늘나라를 살아내는 근원적 신뢰’를 배우라며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막 4:40). 아멘.

장선철 교수 (前상담심리학과 교수)

## 예배안내

###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해 주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병수 목사(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대학교회 206호)

## 기도문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학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전주대학교를 세우시고 59년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특히, 2023학년도 신입생들을 전주대학교의 가족으로 보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수1:9)

전능하신 하나님, 대학교육환경이 엄중한 현실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학을 위해 세우신 이사장님과 총장님을 중심으로, 교무위원과 교수회, 직원노조, 학생회 등 모든 구성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소서.

사랑의 주님, 교직원 선생님들을 학생들을 섬기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인간의 얕은 지식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시오. 교직원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섬김 속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소서. 대학에서 좋은 친구, 교수님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시어, 축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열린 귀를 주소서. 더 높은 소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누구든지 곤경속에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어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열린 눈을 주소서.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찾아 비전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마음껏 펼치는 비전의 청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학생들에게 열린 손을 주소서. 주님의 복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재빠른 열린 손을 주소서. 앞으로 학생들에게 주신 대학생활의 모든 시간들, 청지기처럼 잘 관리하게 하시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어, 일과 삶 모두에서 성공하는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혜금 교수 (국제교류원장/경영학과)

## 인류의 책임전가 행습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장/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교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3:12)  
 아담의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팩트를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인데도 죄의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물음에 답하는 아담의 진술은 너무나도 궁색하다. 하나님의 유일한 금령을 어긴 아담의 처신은 "책임전가" 신공을 구사하는 것이었다. 사실 이것은 아담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공통적인 문제이다. 오고 오는 수천년의 장구한 세대들이 일관되게 답습하고 있다. 이 신공은 책임의 소재가 추궁되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동원된다. 책임을 전가할 마땅한 대상이 눈에 걸리지 않을 경우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망각을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하

는 사례들이 메스컴의 요충지를 빼곡히 차지하고 있다. 역사의 길이만큼 오래된 책임전가 문화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만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급속히 퍼지는 역병처럼 번져 편만하다. 어디부터 건드려야 할지, 도무지 대책이 서질 않는다. 이러한 때에는 언제나 문제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가장 단순하고 본질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금령이 직접 주어진 대상은 아담이며 하와도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을 보면 아담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 금령에 대해 주의를 주었던 게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졌다면 아담의 전달력에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 하와가 너무도 먹음직도 하고 보임직도 한 과실에 욕심이 생겨 죄를 잉태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의존적인 사색을 한다면 문제의 책임을 아담에게 돌리게 마땅함을 깨닫는다.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아담이 팩트를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아와 심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증인의 입술에서 팩트가 진술될 때에 비로소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분이 아니시다. 다 아시지만 인류의 대표성을 띠는 아담에게 먼저 물으신 것은 사실을 말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러신 것도 있겠지만, 뭔가 다른 것에 대한 기대도 있으시다. 그러나 그 기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담의 웅졸하고 면피적인 처신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듯해 안타깝다. 오히려 두번째 아담인 예수님의 처신에서 나는 하나님의 기대를 감지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고 교회가 저지른 일이라며 정확한 팩트를 지고

하여 죄책을 면하고자 하였던 첫번째 아담의 처신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살도록 당신은 스스로 죽으셨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었지만 책임을 지셨기에 억울했다. 그러나 아담은 죄를 짓고서도 책임 회피에 진심을 보였기 때문에 비겁했다. 이렇게 대조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을 택하셔서 인류를 구하셨다. 아담의 처신이 이랬어야 했다. 하와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한한 사랑과 무궁한 긍휼을 신뢰하며 회개의 무릎을 꿇었어야 했다. 혹 회개한 이후에 사망의 샅을 지불하게 되더라도 그런 태도를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를 못했던 아담, 마치 오늘날 우리의 실상을 별거벗은 것처럼 비추는 듯해 얼굴이 화끈거린다. 전 인류와 온 역사의 실상과 수치가 아담의 비겁한 처신에 다 압축되어 있는 듯해서다. 이에 우리는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의 근성을 훌러덩 벗고 자기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마치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주 앞에 앞드려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여 십자가의 의를 전가하신 두 번째 아담의 처신으로 살아가야 한다. 첫번째 아담이 보여준 책임전가 행습의 고리를 그렇게 끊어내야 한다.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지 않고 나 자신에게 돌리는 것 자체가 인류의 장구한 역사를 군림해 온 책임전가 행습에 종지부를 찍는 효력을 가져온다.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실천하자. 인류의 무너진 관계성의 첫 번째 원인이 말끔히 제거된다. 동시에 두 번째 아담의 영광은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 갈아 입기와 덧 입기

<쉽게 읽는 성경> ④



조재천 교수  
(선교신학대학원)

우리 학교에서 자동차로 남서쪽으로 20-30분 정도 내려가면 모악산 자락 한적한 곳에 자리잡은 김제 금산교회를 만나게 된다. 금산교회는 전북지역을 선교했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루이스 테이트(L. B. Tate)에 의해 1904년 세워졌고, 지금의 교회당은 1908년에 건립된 전라북도 최초 교회당 중 하나이다. 특히 이 교회당은 한국 교회 초기 대표적인 건축 형태인 'ㄱ'자 구조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교회 바로 앞에 역사박물관도 마련되었다. 금산교회에 전주에서 가까워서 이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기독교 역사 명승지에 속한다. 금산교회의 전체적인 모양이 'ㄱ'자인 건 맞다. 하지만 남자 예배실이 여자 예배실보다 두 배 가까이 더 길어서 전체적인 형태가 기억자 중에서도 납작한 기억자처럼 보인다.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위를 올려다보면 서까래가 뻗어나간 천정 가운데를 따라 길게 뻗은 종도리가 보인다. 거기 쓰인 글을 상량문(上梁文)이라고 한다. 대들보를 올려 지붕을 완성할 때 집 전체에 깃들 복을 비는 내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금산 교회당의 상량에는 성경 말씀 두 구절이 적혀 있다. 맨 먼저 상량

일, 즉 1908년 양력 4월 3일이라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성경말씀 두 구절이 나온다. 여자 예배실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17절인데, 언문, 즉 한글로 쓰여 있다: "너희가 하노. 님의 성전이 된 것과 하노 님의 성신이 너희안해 거룩함을 아지못하 노노 누구던지 하노 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면 하노 님이 그사롬을 멸하 실지라 하노 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또한 그러하 니라." 그리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더해져 있다: "주여 당신 오실 때까지 늘 거룩하게 하 시옵소서 아멘." 교회당만 거룩하고 교회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각자가 일상의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권면이다. 남자 예배실 천정에 또 다른 상량문이 있다: "我知此身、猶土室帷幕、雖壞、然有上帝經營、非手所作之室、悠久於天、吾處此嘆息、欲得自天而降之室、若衣被體既得其衣、體不復裸、吾處此幕、勞而嘆息、非欲去之、乃欲得其室、致死了而生存、我行此者上帝、賜聖神質、故心恆安."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1-6상반절의 한문 성경 본문이다. 그 출처는 1857년에 출판된 '대표자 역본' 혹은 '위판역본'이라고 불리는 역본으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우리말 역본들하고도 다르고, 현대 중국어 성경들하고도 여기저기에서 차이를 보인다. 당연히 번역 과정에서 디테일과 표현은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인 뜻은 잘 전달되고 있다. 이 구절도 여자 예배실 상량문처럼, 물리적인 구조물인 금산교회당과 신자 각자의 육체적 존재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바라보게 한다. 그 두 가지 물질적 현존은 지금 당장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터로서 각각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교회당이든 우리의 몸이든, 그보다 더 궁극적이고 영원한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이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지금 이곳에서의 물질적, 사회적 현존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그리고 그것을 너무 무시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권면한다. 고린도후서 말씀 자체에는 건물로 세워진 교회당을 염두에 둔 가르침이 담겨 있지 않다. 그렇지만 금산교회당을 세운 첫 기독교인들은 교회당 지붕을 올리면서 이 말씀을 종도리에 써 두었다. 신자들이 예배하러 교회당에 드나들 때, 이 교회당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깊이 느꼈을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건물은 단지 건물일 뿐이라는 것, 세상 모든 물질이 그러하듯이 교회당도 우리의 몸도 썩고 부서지고 소멸할 것임을 일깨움 받았을 것이다. 2절에서 바울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했다. 또 4절에도 비슷한 생각이 표현된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덧입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이미 입은 옷 위에 겹쳐서 옷 한 벌을 더 입는다는 뜻이다. 1절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둘은 바로 신자의 두 가지 존재 방식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둘을 옷에 비유해서 두 벌 옷을 '덧입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둘은 공존할 수 있고 또 연속적일 수 있다. 우리의 몸, 물질적 존재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옷이 그 위에 덧입혀짐으로써 새롭고 영원한 존재로 변할, 그런 밑바탕이 된다. 이 변화는 아마도 종말에 일어날 인간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책 고린도전서 뒷부분에는 (15장) 이 주제, 즉 부활할 때 인간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온다. 1-4절이 중

말 혹은 영원의 차원에서 인간의 존재를 설명했다면 이어지는 5-7절은 그런 궁극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살아갈 때 명심해야 할 실용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5절). 땅의 존재와 하늘의 존재는 성령이라는 매개를 통해 연결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리는 실체이며 인격적 존재이다. 성령은 신자들 내면에 들어와 감정과 의지, 인식에 까지도 작용한다고 여겨진다. 그렇게 해서 비록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신자들은 비록 부분적이거나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을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된다. 7절은 성령을 통해 새로워진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6절은 이 단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다. 『개역개정』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의 담대함(혹은 평안함)이 '주와 따로 있음'의 이유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 하지만 『공동번역성서』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옮겨서 육체적 현존의 잠정적이고 제한적인 성격을 우리의 담대함에 병행하는, 그리고 대비되는 것으로 표현한다. 이 번역은 바울의 생각의 흐름을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의 몸도, 돌과 나무로 지은 교회당도 분명 일시적이고 필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늘의 영원한 장막을 '덧입을' 가능성을 지닌 귀중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도 하다.

NEWS 기자칼럼

## 환경 오염을 부르는 '친환경' 제품들



전지은 기자  
(uptoillie20@jj.ac.kr)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구온난화라는 단어를 접하며, 환경을 아껴야 한다고 배우며 자란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분리수거나 땅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등 개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구온난화는 지표 부근의 기온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기상 현상이다. 이에 자칫 '더워지는 게 어때서?'라는 생각할 수도 있다, 영국의 저명한 과학 저널리스트 마크 라이너스의 '최종 경고 : 6도의 멸종'에는 지구의 평균온도가 오를 때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말하고 있다. 1°C 상승하면 북극의 얼음이 녹는 속도가 빨라져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놓인다. 2°C 올라가면 그린란드 전체가 녹아 마이아미, 맨해튼이 바다에 잠기고,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환자들이 수십만 명으로 늘어난다. 3°C 오르면 지구의 폐 아마존이 사라진다. 4°C 오르면 높아진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뉴욕이 물에 잠긴다. 5°C 이상 오르면 정글이 모두 불타고 가뭄과 홍수로 인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 남지 않는다. 평균온도가 6°C까지 오르면 생물의 95%가 멸종한다고 한다.

무작정 '온도가 오르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지구온난화처럼, 우리가 평소에 안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에코백이다. 에코백은 일회용 비닐봉지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는 해결책으로 알려졌지만, 미국과 영국, 덴마크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재의 에코백은 131회 이상 사용해야만 환경보호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에코백을 가지고 있거나 구매 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오히려 비닐봉지보다도 더 해롭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환경을 해치는 주범에는 텀블러가 있다. 특히 팬층이 두꺼운 스타벅스에서는 벚꽃, 크리스마스 등 다양한 콘셉트로 매 시즌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며 2022년 9월 기준으로 2019년 266만 개, 2020년 298만 개, 2021년 303만 개, 2022년 259만 개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환경보호를 앞세우는 텀블러이지만 제작 시 종이컵보다 약 27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텀블러는 50회 이상, 스테인리스 소재의 텀블러는 220회 이상 사용해야 환경보호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에코백이나 텀블러를 구매하는 일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보호에는 무엇이 있을까? 통상 메일은 한 통에 4g의 이산화 탄소를 배출한다. 따라서 메일함 1GB를 비우면 14.9kg을 감축할 수 있다. 영국 에너지 공급 업체 오보(OVO) 에너지도 쓸데없는 메일 75%만 지워도 230만 대의 자동차를 도로에서 없애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통화는 1분에 3.6g, 포털은 검색 때마다 0.2g, 비디오 스트리밍은 10분당 1g, 데이터는 MB당 11g의 탄소를 배출한다. 텔레비전의 경우 매일 1시간씩 시청할 경우 32인치 기준 연간 탄소 32kg을 배출한다고 한다. 이는 휘발유 차 한 대로 72km를 운전한 것과 같다. 이같이 클릭 몇 번으로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환경의 심각성과 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알리면 어떨까.



이미지출처: openAI의 DALL-E를 사용하여 만든 이미지

NEWS 기자칼럼

## 공격받는 기독교



김하람 기자  
(202015030@jj.ac.kr)

교회는 지금 청년들의 기피 대상이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먼저 환경의 영향이 크다. 지금 시대는 굉장히 경쟁적이고 청년들이 삶을 살 때 강한 압박을 느낀다. 이런 환경이 그들의 시야를 제한하고 청년들을 자유로운 개인으로 사는 것보다 경쟁에서 버티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 그렇다고 의미의 추구를 치위두고 경쟁에서 먼저 생존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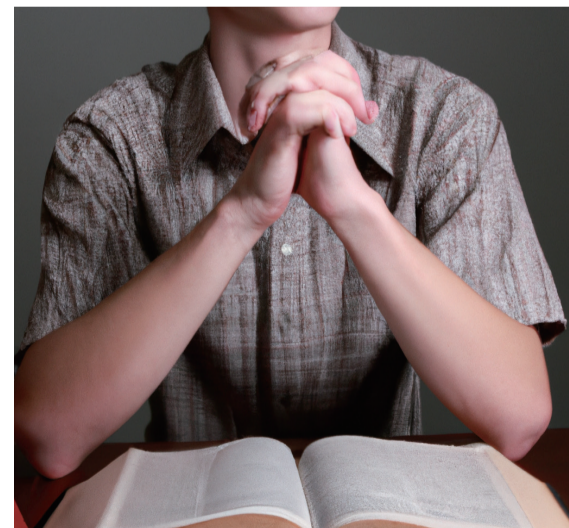
오만을 내려놓자 기독교는 수천 년간 보편종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냈다. 기독교는 현대에 오는 계단의 하나이고 지난 일인가? 지금도 사회를 작동하는 한 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소설 중 개인이 과거로 돌아와서 역사를 바꾸는 장르가 있다. 이 장르는 현대인이 과거로 가지만 한다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오만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시대의 디딤돌일까? 과거의 위대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의미가 없을까?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의 위대함은 시대를 초월한다. 지금 청년들은 기독교의 전통적 가르침이 지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구시대적 전통으로 보고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다. 예수님은 선한 삶의 근원이 된다. 이런 전통적이고 형이상학적 이야기들은 의미가 직접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에 이런 도덕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자 조별과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점수만 타고 수업 출석하는 등 이 정도의 도덕적 헤이조차 우리를 살아가기 불안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왜 선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답을 준다. 이 답이 절대적인 답이기에 우리에게 안정을 준다. 청년 개인으로서 안정적인 답을 주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의식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는 위기 속에서 항상 흔들린다. 우리는 도덕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왜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줄 수 없다. 이런 고차원적인 논의가 우스꽝스러운 그들만의 잔치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넓은 관점으로 시간을 두고 고민하길 바란다.

한편 교회는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잘 내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교회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가? 그들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느끼게 해주는 모든 조치 교육과 재정지원을 하는가? 많은 도움이 있다 하지만 부패한 교회에 대한 뉴스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미디어에서는 여러 중요한 사실들을 보도한다. 하지만 이 보도는 통계적으로 일부의 이야기만 보도한다. 뉴스에서 나오는 대부분 강력범은 사실 불일이 거의 없다. 항상 자신의 관점이 달랐다는 사

실을 알고 시야를 넓혀 경계했으면 좋겠다.

이번엔 선한 신에 대한 치명적인 비난을 살펴보겠다.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절대적 신이 어떻게 절대적으로 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이기에 우리의 세상은 혼란스럽다. 하나님이 부재한다면 우리는 이런 불합리를 자연 일부로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조리에 대해 분노한다. 이 분노의 이유가 절대적 선의 부재 즉 신의 부재가 원인인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부조리에 대한 분노의 이유가 어떤 고차원적인 신의 선함을 믿는 것에 비롯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원망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미지출처: openAI의 DALL-E를 사용하여 만든 이미지

**NEWS** 신임교수칼럼

## 생각지능의 탄생 - 문제 재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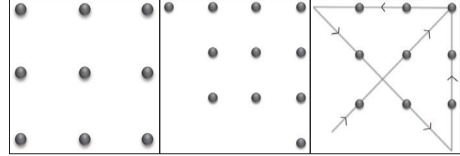


송해근 교수  
(기술경영공학과)

독일 심리학자 칼 던커(Karl Duncker)가 1945년 소개한 '촛불실험(Candle problem)'은 매우 간단하다. 그림과 같이 탁자 위에 양초 하나, 압정 한 상자, 성냥(라이터)을 두고 피실험자들에게 "양초를 벽에 붙이되 촛농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물론 벽은 압정이 들어갈 수 있는 합판이나 크로크로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압정으로 양초를 벽에 고정하려 하지만 잘 안된다. 다른 사람은 촛농으로 벽에 붙이려 하지만 그것도 안통한다. 이렇게 몇 분의 시도 끝에 아하~ 다음 그림과 같은 해결책을 찾아낸다.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기능고착(Functional fixedness)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압정이 담긴 상자를 압정 용기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프린스턴대학교 심리학과 샘 글럭스버그(Sam Glucksberg) 교수는 1960년대 후반 금전적 동기부여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살펴 보기 위해 '상자에서 압정을 분리'한 새로운 촛불문제를 고안하였다. 이 실험은 이전 던커의 촛불문제와 유사해 보이지만, 기능고착의 함정을 없앤 매우 쉬운 문제이다. 당시 참여자들은 2분~3분만에 문제를 쉽게 풀었다(기존의 촛불문제는 5분~10분 소요되었음). 글럭스버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 실험을 통해 동기부여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즉, 던커의 촛불문제 실험에서 가장 빨리 정답을 제시한 사람에게 약 50만 원의 금전보상을 제안했더니, 놀랍게도 문제해결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대략 두배로 알려져있다). 물론, 동일한 금전보상을 글럭스버그의 단순화된 촛불문제에 적용하면, 기존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해결책을 도출한다. 이러한 현상은 퍼즐문제로 잘 알려진 9점문제(Nine-dot problem)와 11점문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잠시 9점문제를 살펴보면(오른쪽 위 왼쪽 그림), 4개의 직선만 이용하여 9개의 점을 모두 연결하는 과업인데, 9개 점으로 형성되는 인지적 장벽(Perceptual block)을 극복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해답은 오른쪽 맨 오른쪽 그림). 반면, 11점문제는 9점문제에서 인지적장벽을 제거한 매우 쉬운 문제이며(다음에 나오는 중간 그림), 11점문제는 금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매우 효과적이지만(글럭스버그의 단순화된 촛불문제와 같은 결과), 9점문제에서는 전통적 보상체계가 오히려 문제해결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던커의 촛불문제와 같이 문제해결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요약하면, 세상에는 기계적역량(Mechanical ability)을 요구하는 문제(즉, 글럭스버그의 단순화된 촛불문제와 11점문제)와 인지적역량(Cognitive Ability)을 요구하는 문제(즉, 던커의 촛불문제와 9점문제)로 구분되며, 전자는 인센티브와 같은 전통적 보상체계에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으나, 후자는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고유 영역으로서 '자유로운 발명적 사고과정'을 통해 과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을 '생각지능(Thinking Intelligence)'으로 명명하며,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러분은 미래사회에 어떠한 과업을 수행하며 행복권을 추구할 것인가? 단순반복작업으로 구성된 과업을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인지적 스킬을 요구하는 과업을 수행할 것인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은 스스로 문제의 식(비판정신)을 가지고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생각지능을 높이는 것이다.

**NEWS** 나의 좌우명(座右銘)

## 하지 마라, 그래야 하는 게 있다



오향녕 교수  
(일반대학원 사학과)

남들은 'OOO을 하자'고 다짐할 때, 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찾았다. 그러면서 알았다. 하지 않는 것도 하는 것만큼 힘들기도 비슷하기도 하다. 종종 뭘 하지 않는데 왜 힘이 드느냐고 묻는다. 화 안 내고 참는 게 쉬우면 누구도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힘드니까 화를 내는 것이지. 물론 슬기롭게 화를 해소한다면 기분도 좋다. 담배 피우는 걸 예로 들어보자. 세상 모든 일에는 나중에 도움 되는 게 있다. 도둑질도, 싸움도, 사기당하는 것도 모두 하나 이상의 남는 게 있다. 그러나 흡연은 아니다. 백해무익(百害無益), 담배처럼 정확하게 들어맞는 인간의 행위는 없다. 불행하게도 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친구네 집 사랑방에서 시작된 흡연은 지독하게 나를 따라붙었다. 흡연자

대부분이 그렇듯이 나도 12시간, 하루, 사흘, 1주일, 2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 심지어 1년도 끊어보았다. 그런데 다시 피우고 말았다. 담배는 요물(妖物)처럼 마음에 틈만 생기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잖아! 다시 피워. 지금 힘들잖아?'라고 유혹하며 나의 여리고 허한 마음을 파고들었다. 물론 담배 끊기는 내 의지의 영역만이 아니다. 당초 담배를 파는 세상이 더 문제다.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하다는 담배를 버섯이 편의점, 슈퍼에서 팔고 있는 세상이라니! 그걸 방지하는 것도 모자라 흡연 공간까지 마련해 주는 사회라니! 더더구나 담배를 팔아 거두는 세금 때문에 담배 판매를 합법화하는 국가라니! 나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로 바로 담배 판매의 합법화를 든다. 아무튼 이 담배를 끊는데 무려 25년 이상 걸렸다. 2004년 12월, 해골바가지 금연 그림을 그려서 방과 거실은 물론, 마당까지 따라다니던 작은 아이의 사랑스러운 성화를 외면할 수 없었다. 지금도 그 서툰 포스터를 들고 '아빠, 담배 피웠지!'하고 신문하던 녀석의 표정이 또렷이 기억난다. 더하여 그때 시작한 마라톤은 흡연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스포츠였다. 그렇게 이제 담배로부터 멀어진 지 19년째이다. 그런데도 나는 가

끔 담배 피우는 꿈을 꾸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잠을 깬다. 휴~ 꿈이었구나..... 하면서. 군대 다시 가는 꿈을 안 꾸지 이미 오래인데 말이다. 이렇게 나는 안 해도 될 일을 먼저 쳐나가는 방식으로 내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다. 난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건 슬렁슬렁하는 게 좋다. 다만 안 해도 되는 건 안 한다. 내일 산에 가기로 되어 있으면 오늘 저녁에 술을 마시지 않는 거다. 마셔도 조금만 마시고. 특히 10월에 마라톤 대회가 있으면 적어도 1달 동안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내일 강의 준비를 해야 하면 지금 유튜브 짤을 보는 데 시간을 쓰면 안 되는 거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야 할 일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2천 년 전에 이미 맹자(孟子)께서도 말씀하셨다. "사람은 뭔가를 하지 않아야 보람이나 성과가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人有不爲也而後可以有爲]

## 사설

### 대학 내 ESG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갖자

전 세계적으로 ESG 가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함께 일컫는 말로, 본래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비재무적 요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사회적·윤리적 가치와 책무를 중시하고 이를 실제 기업 활동에 반영해야만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 용어는 단지 개별 기업의 경영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단위에서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지역 대학들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대학을 비롯하여 전북대·전주교대·예수대·기전대·비전대 등 전주시내 6개 대학은 지난 2021년 10월 전주시와 함께 '전주시-대학 ESG 공동실천 협약'을 맺고 ESG 가치 실천에 동참하기로 뜻을 같이한 바 있다. 당시 구체적인 목표로는 '친환경 캠퍼스 조성', '재능 나눔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대학 조성', '청렴하고 평등한 대학문화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목표별 세부 과제로는 환경 분야에서 '캠퍼스 내 나무심기', '일회용품 줄이기', '낙후지역 도시재생 사업' 등을, 사회 분야에서는 '교육 봉사', '농촌일손돕기 지원', '동아리 재능 기부' 등을,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청렴한 대학문화 조성',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예방 교육', '구성원 소통 네트워크 강화' 등을 거론하였다.

우리 대학에서 유휴지를 이용해 조성한 스타정원을 지역 사회에 개방하여 시민들의 열린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대표적인 친환경 ESG 활동으로 손꼽힌다. 또한 지난 2월에 진행된 'ESG 캠페인: 캠퍼스 자연보호 활동', 그리고 총학생회 주관으로 진행해 온 '밀레니얼 운동'이나 '하계 농촌봉사활동' 역시 대학의 사회 공헌 책무를 수행하는 ESG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우리 대학과 학생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모든 행사에 나눔·배려·공존의 가치를 담아낼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우리 대학에서는 오는 6월에 ESG 가치를 실천하는 농촌봉사 활동을 예정하고 있다. 올해에는 기존의 농촌 일손돕기 활동에 더해 농업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7월에는 현대자동차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하는 국토대장정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단순히 걷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플라스틱을 수거해 재활용하여 굿즈로 제작하고 이를 기부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 대학이 기업·지자체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적인 협업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교내에서는 대외협력홍보실, 지역혁신센터,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단 등이 주축이 되어 ESG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전 세계가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동참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대학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신문방송국 운영실 063) 220-2441  
대학신문사 편집실 063) 220-2442

발행인 | 박진배  
주간 | 백진우  
편집장 | 박헌빈

편집: 대학신문사 편집부  
인쇄: (주)다울  
인터넷신문: news.jj.ac.kr

## Jeonju University, 'Glocal University 30' Innovation Proclamation Ceremony

-Accompanying the local community as a glocal university that realizes student success and future value

On the 4th, our university held the 'Glocal University Innovation Declaration Ceremony' along with the 59th anniversary ceremony at the JJ Art Hall.

in the Art Hall. Unlike the existing opening ceremony, the event was held on a schedule to share the progress of th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with university members and to strengthen the resolution to promote the project.

Th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a project to select a total of 30 universities by 2026, about 10 by 2023, for non-metropolitan universities, and support a total of 100 billion won for 5 years. The Ministry of Education aims to foster leading universities with global brand value through strategic investment and support through this project.

At the proclamation ceremony, the chairman of Shindonga Academy, the president of Jeonju University, the president of the alumni association, the professor chairman, the staff chairman, and the student chairman jointly read the Glocal University Innovation Declaration and expressed their will to promote Jeonju University's 'Glocal University 30'.

The proclamation ceremony, Vice President Hong Seong-deok, demonstrated Jeonju University's will and capacity to fulfill its mission as a regional university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become a glocal university under the vision of "a glocal university that realizes student success and future values." It was a place to make sure.

Inside the school, it was announced that it would become a sustainable university by promoting bold university innov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education and research, cooper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and international exchange, and securing global competitiveness in the specialized field by linking local industries and society.

President Park Jin-bae said, "We will unite the will and passion of all members to promote successful selection as a glocal university, and together with the local community, we will complete an innovative model for regional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Jeonju University has been continuously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university members, local industries, and innovative institutions to promote a glocal university, such as holding a forum for local industry-academia-research cooperation since last March.

| Article Public Relations Office for External Cooperation  
| Editor & translated by reporter Park Heon-bin(hans8150@jj.ac.kr)

## 59th Anniversary Honorary Doctorate Ceremony

- Park Seong-gyu, CEO of Yuwon Engineering(Honorary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 Korea Habitat for Humanity Korea Chairman Hyungjoo Yun(Honorary Doctor of Social Welfare)

On the 4th, our university held an honorary doctorate conferment ceremony to commemorate the 59th anniversary of the university.

At Onnuri Hall, with around 300 guests attending, including National Assemblyman Ahn Min-seok, Chairman Cha Jong-soon of Shindonga

Academy, and President Park Jin-bae, CEO Park Seong-kyu and Chairman Yun Hyeong-joo were selected as exemplary figures for university members and the local community, and honorary doctorate degrees and honorary doctorates in business administration, respectively. Doctorate in Social Welfare was conferred. Yuwon Engineering is a company specializing in air conditioning systems for large buildings. CEO Park Seong-kyu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design field, and is passionate about social activities in various fields, such as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president of Yonsei University ROTC alumni, and director of Huree University Foundation in Mongolia. It has contributed greatly to the growth and stabiliza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Meanwhile, Yoon Hyeong-joo, who left great achievements in the history of Korean music with the songs "Se Si-bong" and "Twin Folio" is currently serving as the chairman of Habitat for Humanity Korea. Since the establishment of Habitat for Humanity Korea, which began in 1994 with 'Building Houses of Love', it has started a housing construction ministry for homeless families and has continued the ministry to improve the vulnerable living environment for 29 years. Sharing the love and grace of Jeonju University, Jeonju University's founding philosophy, 'realization of the Christian spirit', is being practiced physically.

CEO Park Seong-gyu said, "I will work harder to develop society and the country, and continue to share and serve our neighbors" and thanked him with a song. President Park Jin-bae said, "CEO Sung-gyu Park and Chairman Hyung-joo Yoon both left outstanding achievements in their respective fields and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society.

| Article Public Relations Office for External Cooperation  
| Editor & translated by reporter Park Heon-bin(hans8150@jj.ac.kr)

## Held a 1,000 won breakfast recipe contest for the taste of MZ college students

- Jeonbuk-style, 1,000 won breakfast menu using Jeollabuk-do local food...

Our university held a recipe contest with the theme of "Breakfast of 1,000 won for MZ college students using local food from Jeollabuk-do" Ahead of the full-fledged start of the 1,000 won breakfast in the 2nd semester, our university is part of developing a menu to provide a differentiated 1,000 won breakfast customized to MZ college students using our rice and Jeonbuk local food, which is simple, delicious, and can sometimes be packaged. said that they planned a recipe contest. 1 team will be given a prize money of 500,000 won and a certificate from the president, and 1 team for the first prize, 2 teams for the excellence prize, and 3 teams for the encouragement prize will be selected. am.

In addition, our university plans to conduct inspections for student preference and full-fledged 1,000 won breakfast operation in the second semester through pilot operation during the final exam period in June in collaboration with cafeterias on some of the selected menus. Through this contest, Vice President Hong Seong-deok said, "We want to make a healthy and delicious 1,000 won breakfast that MZ college students like by using local agricultural products. We plan to share it with Jeonlabuk-do and universities in the province so that it can be a 1,000 won breakfast menu"

| Article Public Relations Office for External Cooperation  
| Editor & translated by reporter Park Heon-bin(hans8150@jj.ac.kr)

## Jeonju University, leading the local talent development project

- Continuing its role as a glocal university, such as providing excellent education for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declining population areas Our university is receiving a great response from the local community and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e province by leading the operation of the 'locally embracing university-middle and high school linkage talent development project'. 'Regional University-Middle/High School Linked Talent Development Project' was a project promoted by Jeonlabuk-do last March with the goal of bridging the regional educational gap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s in declining population areas and nurturing local talent by utilizing university resources in the province. As a result of the project selection, Jeonju University was ranked first among universities in the province in various areas, and achieved a splendid feat of being allocated about 500 million won of the total project cost of 2 billion won. Our University is the only university in the province that provides education that covers all 10 cities and counties in declining population areas in the province, and is conducting customized education by signing agreements with 20 middle and high schools. Joo Jeong-ah, Director of Admissions at Jeonju University, said, "In this project, middle and high schools, which are receiving various programs from Jeonju University, have had difficulties in providing quality educational contents. However, the response from the education field is explosive in that the gap in education is being bridged through this opportunity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students is increasing"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are provided with state-of-the-art education in major future industries, such as metabus, eco-friendly energy, drones, and 3D printing, based on the university's excellent lecturers and infrastructure.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Jeonju University's education program include participation in various practices and customized career counseling. Meanwhile, in addition to this project, Jeonju University has contributed for a long time to bridging the educational gap and nurturing local talent, such as 'operating a high school fair' and 'operating an entrance examination counseling center' for information-underserved areas through the 'High School Education Contributing University Project' conducted by the Korea University. It is faithfully fulfilling its role as a university befitting a glocal university by showing an innovative model for regional development together with the local community.

| article Public Relations Office for External Cooperation  
| translated by reporter Park Heon-bin(hans8150@jj.ac.kr)

## 全州大学为留学生开展企业探访活动



据全州大学对外协力弘报室15日消息，10日，全州大学（校长朴珍培）带领25名外国留学生探访了位于金堤市白山面地平线产团的汽车零部件生产企业（株）大胜（会长：李哲根，音译）、大胜精密（株）（代表：金长松，音译）、（株）日刚（代表：郑世民，音译）。

作为韩国法务部提高地区经济活力、引进生活人口的地域特化型签证示范事业，今年二月全州大学有10名外国留学毕业生在上述企业就业。此次活动再次访问这些企业，欲通过企业介绍和现场参观学习提高留学生对前途设计与职务的理解。

（株）大胜的崔名洛（音译）理事说：“你们前辈适应能力很强，而且现场的反馈也很好。所以我们想扩大聘用人员。希望今天的经验帮助大家的学习和前途设计。为了让全球性人才在我们公司成就梦想，我们将不遗余力。”

参与此次活动的瓮沃中町（音译，越南，四年级）说：“通过现场参观学习提高了对社区企业的理解，也为毕业后决定就业方向有了很大的帮助。希望有更多这样的机会，让更多的学生来参观学习并体验社区企业。”

大胜（音译）集团由（株）大胜、大胜精密（株）、（株）日刚组成，在金堤市地平线团地等经营5个工厂。大胜集团的产品销售总额为4300亿韩元，是持续成长的企业。

据全州大学对外协力弘报室10日消息，全州大学（校长朴珍培）确定以新建“软件融合学院”及本科制改编等为主要内容的教务单位结构改编案。

结构改编是将学生名额（2512名），改编为65个系、4个学院、8个专业。为了入选韩国教育部评选的30所Glocal大学，此次改编不仅反映了学生的意见，也充分听取了社区社会的见解。

此次改编不仅新设立了以未来产业为中心的“软件融合学院”，还反映社区产业的需要新建了“数据工程系”。

人文学院更名为“人文信息学院”，增设了网络漫画主题系。还通过本科制改编新建了网络文艺创作专业。另外，反映社区产业需要在农业科学领域设立食品营养系、在未来新材料及能源领域设立新材料化学工程系、未来能源工程专业等。

## 全州大学确定教务单位结构改编案



以社区和大学协同发展为目标，将成人求学者为对象，在未来融合学院设立了本地风险投资本科、环保汽车系、伴侣动植物系、密涅瓦本科等。本地风险投资本科由治愈休闲专业和本地商务专业组成。而密涅瓦本科则由技术经营工程专业和文化信息专业组成。

负责教育的黄仁秀副校长表示，为了培养以新学问为基础的下一代、也为了以学生需求为中心编排教育课程，学校以未来产业为中心大刀阔斧地进行了教务改编。

此次全州大学反映学生与社区需要而制定的教务结构改编案将通过教务委员会和大学评议会审查，6月份确定为校规，并从今年入学考试开始实行招收2024年的新生。

## Du học sinh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tham quan doanh nghiệp khu vực

Vào ngày mùng 10 tháng 5, 25 bạn du học sinh đang theo học năm 3, năm 4 có buổi tham quan thực tế tại công ty Dae Sung, công ty Dae Sung là công ty sản xuất linh kiện ô tô, mặt khác doanh nghiệp Dae Sung bao gồm Dae Sung, Dae Sung Jeongmil và Ilgang, hiện đang vận hành tổng cộng 5 nhà máy tại khu công nghiệp Daedong, khu công nghiệp Seo Heung. Tổng doanh thu của tập đoàn đạt 43 tỷ won. Tại công ty Dae Sung các bạn du học sinh được nghe giới thiệu về công ty, tham quan thực tế các bộ phận làm việc để hiểu biết thêm về quá trình làm việc cũng như con đường định hướng nghề nghiệp sau nà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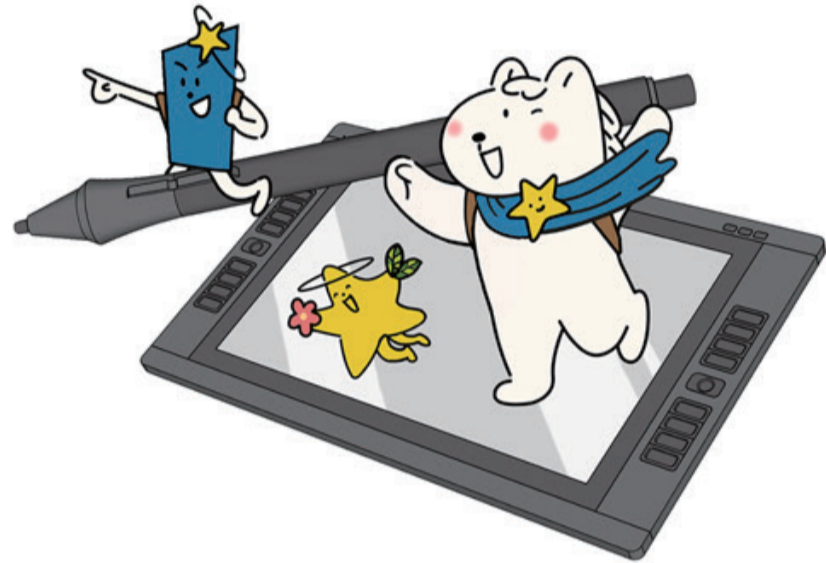
Sự kiện lần này là một dự án thí điểm visa đặc biệt khu vực của Bộ Tư pháp nhằm tăng trưởng kinh tế địa phương và thu hút dân số sinh hoạt, tháng 2 vừa qua 10 du học sinh Jeonju tốt nghiệp và đã xin việc vào công ty Dae Sung đi làm.

Giám đốc Choi Myung Rak của công ty cổ phần Daeseung cho biết: "Các tiền bối của các bạn thích ứng tốt, làm việc chăm chỉ, có phản ứng tốt tại các bộ phận đang làm vì vậy có thể chúng tôi sẽ mở rộng việc tuyển dụng. Hy vọng kinh nghiệm hôm nay sẽ giúp các bạn có quyết định phương hướng học tập cũng như sự nghiệp của mình. Chúng tôi sẽ hỗ trợ để trở thành các nhân tài toàn cầu có thể đạt được ước mơ của mình".

Tham gia hoạt động lần này, du học sinh Ngô Trung Tín (năm 4, Việt Nam) chia sẻ: "Đây là khoảng thời gian quý báu giúp chúng tôi nâng cao hiểu biết về các doanh nghiệp địa phương và quyết định phương hướng việc làm. Mong rằng sẽ có nhiều cơ hội như vậy hơn để nhiều học sinh được tận mắt nhìn và cảm nhận".

전주대학교 웹툰만화콘텐츠학과 신설! (2024학년도 최초 모집)

# 스타 웹툰 작가 & 웹툰 기획사 현직 PD 토크콘서트



2023. 6. 10.(토)  
13:00 ~ 14:40(100분)

전주대학교에 웹툰만화콘텐츠학과가 신설되었기에,  
웹툰에 관심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직 웹툰 스타 작가와 PD를 모시고 웹툰 진로 분야에 대해  
생생하게 듣고 묻는 “웹툰 진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특강 장소** 전주대학교 진리관 성연홀 307호

**주요 내용** 웹툰 관련 직무와 진로 소개

**참가 대상** 웹툰 작가, 글로벌 웹툰 PD,  
스토리 개발자 등  
웹툰 관련 비즈니스에 관심있는 학생

**접수 방법**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폼 작성  
<https://bit.ly/42Bm486>

## 일정

- 13:00~13:30 웹툰 PD란?
- 13:30~13:50 토크(4인 멘토단)
- 13:50~14:20 웹툰 작가란?
- 14:20~14:40 토크(4인 멘토단)

## 연사

-네이버 웹툰-  
<HO!> 억수씨 작가

전주대학교 인문콘텐츠대학 웹툰만화콘텐츠학과  
<https://www.jj.ac.kr/human/>

주최:   전주대학교